

# 김상곤 “계파 모임 중단...앞길 막는자 용납 안해”

## 野 혁신위원장 취임 첫 회견 ‘계파·기득권과의 전쟁’ 선포

### ‘물갈이론’ ‘중진 용퇴론’ 등 공천개혁·인적쇄신 놓고 술렁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27일 취임과 함께 당내 계파주의와 기득권적 행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호남 물갈이론 등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을 젊고 활력 있게 만들겠다고 강조, 대대적 인적쇄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위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이나 개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파주의의 척결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혁신위는 오직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로 혁신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의 새정치연합은 과거를 이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지 못하고 있다”며 “권력을 소유하겠다는 패권과 개인과 계파의 이익을 위해 ‘우산’(인간의 탐욕으로 민동산이 되버린 중국 제나라의 산)의 썩을 먹어치우듯, 새정치연합을 민동산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혁신은 과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역사의 필연이고 시대의 책임”이라며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의 모든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겸허히 혁신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절벽 위에 매달려 있다. 국민과 당원의 손을 잡지 않으면 처참히 부서지고 말 것”이라며 “혁신위는 정당 개혁, 공천개혁, 정치개혁의 무겁고 준엄한 혁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구체적인 혁신안은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호남 물갈이론 등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다. 물갈이론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 시작도 안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검토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당원 구성과 지지층의 구성이 젊어지고, 활력 있게 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이후 대대적인 인적쇄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당 일각에서는

‘물갈이론’, ‘중진 용퇴론’ 등의 얘기가 오가면서, 혁신위가 제시할 공천개혁안과 인적쇄신안을 두고 술렁이는 모습도 감지됐다.

혁신위 구성 시기 및 인선 원칙과 관련,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인선이나 구성, 운영, 활동기간은 모두 혁신위에 위임돼 있다”며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초까지 (혁신위 인선)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도 이날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 자신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육참골단’(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베어내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뜻)의 각오로 임하겠

다”고 혁신의 일선에 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표는 “혁신위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바라는 혁신을 강단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당의 전폭적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며 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양승조 사무총장 이하 당직자 전원이 이날 일괄사표를 제출한 사실을 소개하며 “최고위원회의의 논의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더 쇄신하고 더 당평하는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 지도부는 혁신위 가동 시한을 당초 6월말에서 8월말로 연장하기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문화전당 개관식 11월 25일 열린다

### 개관은 9월4일 예정대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이 오는 11월25일 열린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9월4일 문화전당을 개관하되,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하는 개관식 행사는 11월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개관 기념식을 문화전당 개관일 보다 늦춰 잡은 것은 문화전당 설립의 모태가 되는 상징적 공간인 광주항쟁 보존공간(옛 전남도청, 경찰청) 등 콘텐츠 구축 일정의 차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문화전당이 개관하는 9월4일에는 개관축제를 열고 문화전당의 일부 콘텐츠(공연, 전시 프로그램 등)를 시민들에게 사전 공개할 예정이다.

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은 오는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금남로 등지에서 아르헨티나 극작가이자 시각예술가인 ‘페르난도 루비오’의 시민참여형 연극 ‘내 곁에 있는 모든 것’을 공연한다. 7월4일과 5일에는 극장 무대에서 임민욱 감독의 영상 작품 ‘내비게이션 ID-X가에게’ 등을 선보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전남 7개 기초단체장 공약실천 ‘최우수’

### ■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 광주, 서구·남구·북구·광산구

#### 전남, 목포시·곡성군·장흥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광주 서구와 남구, 북구, 광산구, 전남 목포시와 곡성군, 장흥군이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 광주 남구와 북구는 5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공약실천 평가 결과, 5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광주와 전남지역 7곳을 포함한 모두 50곳이었다.

합산 총점이 8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광주 동구와 전남 강

진군 등 모두 28곳이었으며, 전남 담양·진도·신안군은 공약정보를 관리카드만 제시했거나 정보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실해 D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월 6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선6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매뉴얼)의 홈페이지 공개를 요청한 뒤 2월 9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자료를 모니터 분석, 그 결과를 평가 발표한 것이다.

공약실천계획서 평가항목은 ▲ 종합 구성(50점 만점) ▲ 개별구성(20점 만점)

▲ 주민소통 분야(15점 만점) ▲ 웹소통 분야(15점 만점) ▲ 공약일지도 분야(Pass/Fail)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30개의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로 진행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전문가들 “위헌 해소·농촌 배려 방안 검토 필요”

### 정계특위, ‘선거구 확정’ 기준 논의 공청회...여론수렴 나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기준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선거구 확정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선거구 획정시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엄격히 적용하되 농어촌지역의 역수소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데 따른 대책과 지역대표성 보완 대책이 필요하고 입을 모았다.

정계특위 선거법소위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28일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키로 할 선거구획정위에 제시할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에 착수, 7월 초

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해 선거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윤석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현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며 “위헌 가능성을 해소하면서도 농촌 지역 배려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대규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의 등가성 못지않게 행정구역의 등가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현재 결정대로라면 지방도시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윤종민 명지대 교수는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구 상하한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인구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행정구역, 지리적 인접성, 면적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을 사전에 마련해야 인구대표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된 지역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정철 강원대 교수는 “농어산촌을 지키는 사람도 국민이고 수도권 비대화, 지방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며 “선거구획정에 면적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총선을 앞두고 매번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으려

면 선거구획정 기준 가운데 인구기준일,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 한계 등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관위 윤석근 실장은 “선거구획정기준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면 선거구획정 과정에서의 정치적 갈등이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도 획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정수 확대 주장도 잇따랐다.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은 “국민정서를 감안해야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심상정 의원은 “반값국회의원을 감수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 늘려서 제대로 민의를 대표하는 선거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대통령 내달 14일 訪美...16일 한·미 정상회담

### 미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1위

박근혜 대통령이 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음달 14일부터 17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방미는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 17일부터 18일까지 휴스턴을 방문한 후 19일 귀국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네 번째로 갖게 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무, 경제 등 양자 차원에서 협력 제고 방안 ▲동아시아 및 세계 주요 정세 평가 ▲북핵 문제 등 대북공조 ▲동북아 국가간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201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의 여성’에서 11위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서 46위였다.

포브스는 박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치 속에서도 세계에서 14번째로 큰 경제 대국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월호 침몰사’, 인사 파동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개했다.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의 여성 중 1위는 올헤에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차지했다. 5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 부동산 경매! 무엇이 정답인가!

### NPL과 특수경매만이 정답이다!

**특수경매 배우실 분!**

-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취급
- 주 1회 2시간 3개월 완성
- 1대1 실전사례 교육
- 임대 / 교육비 등 2200만원
- 단, 상담 후 본사 결정

**공동투자 하실 분!**

- 지분이전으로 보장
- 연 12% 이상 수익률
- 투자금 1억원 이상
- 모든과정 공개 투명처리
-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함

**돈 빌려주실 분!**

- 근저당으로 보장
- 연 12~20% 이자 지급
- 차용금 1억원 이상
- 1년~2년 정도 기간
- 개인신상 비밀 보장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

##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대지 328평, 33필지중 1필지
- 동면방향, 화순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2015년 10월말 완공예정
- 매매가 1억 3천 120만원 (평당 40만원)

전대병원, 화순 자매원, 성심 장례식장, 동면, 광덕교차로

**주인직매 H.010-3605-5000**

## 광전파크 빌라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월산동 110-8번지, 34평
- 5층 중 2층, 첫 입주, 정남향, 신축
- 신우APT 105동역, 즉시 입주
- 매매가 1억 6400만원 (용자 1억 1천만원 안고)
- 전세 1억 4천만원 가능 (삭월세 보 1천만원에 65만원 가능)

- 월산동 110-18번지, 19평
- 5층 중 5층, 전망좋은, 베란다 있음
- 신우APT 105동역, 즉시 입주
- 매매가 9500만원 (용자 7000만원 가능)
- 전세 8000만원 가능 (삭월세 보 1천만원에 월 45만원 가능)